

## “국내 배터리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기대”

울산TP·(주)세인이엔지, 협약 체결  
‘전기차 배터리 안전평가 시험연구’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는 최근 (주)세인이엔지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원사업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격 안전성 평가시험에 대한 연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TP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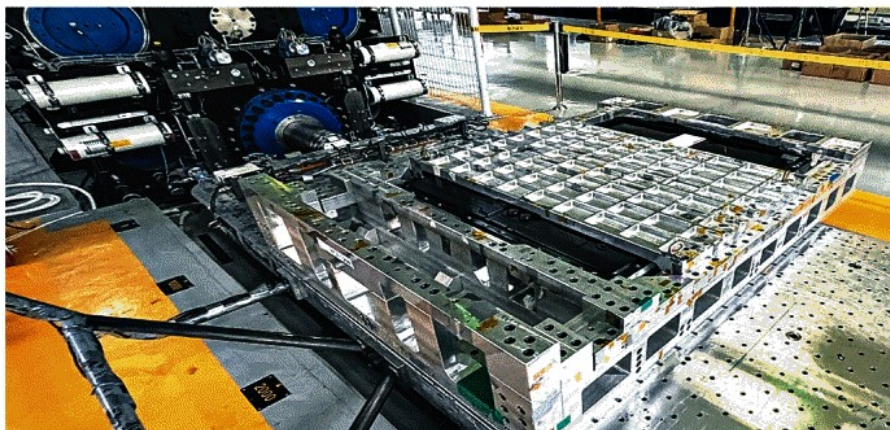
이에 세계각국에서는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규격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전기자동차가 개발되도록 배터리 제조사와 평가기관의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세인이엔지는 경상남도 양산에 소재한 자동차 신뢰성시험 전문업체로 지난 2019년부터 울산TP와 협업해 다양한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KCC 울산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 강소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울산TP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진행하던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함으로써, 외화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유출을 방지해 국내 배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화된 배터리 안전규격을 만족하는 국내 유일의 배터리 평가시험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경 기자 leehk@ulkyung.kr



자동차 충돌시, 안전부품(에어백, 안전벨트, 배터리 및 시트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충돌시험 모사장비. 울산테크노파크 제공

## “외화의존도 낮추고 국내 기술경쟁력 강화”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울산 테크노파크(이하 울산 TP)는 (주)세인이엔지와 함께 해외 평가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배터리 충격 안정성 평가시험 방법 개발에 나선다.

앞서 울산TP는 2019년부터 세인이엔지와 협업하며 다양한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험(수명평가, 환경평가, 내구성평가 및 충격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격 안전성 평가시험에 대한 연구'를 위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울산 TP와 세인이엔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격 안전성 평가 시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외 평가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배터리 충격 안전성 평가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울산TP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진행하던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함으로써, 외화



울산 TP와 세인이엔지가 자동차 충돌시 안전부품(에어백, 안전벨트, 배터리 및 시트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중인 '충돌시험 모사장비'. 사진제공=울산 TP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배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배터리 안전규격을 만족하는 국내 유일의 배터리 평가시험 기관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국내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세인이엔지는 경남 양산에 소재한 자동차 신뢰성시험 전문업체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KCC 울산 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할 예정인 국내 강소기업이다.

이정민 기자

## **울산매일**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009면 경  
제

### **울산테크노파크·세인이엔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검증 협력**

울산테크노파크와 ㈜세인이엔지는 19일 해외 평가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배터리 충격 안전성 평가시험 방법 개발에 나섰다.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 등에 따르면 울산TP와 세인이엔지는 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원 사업(전기자동차 배터리 충격 안전성 평가시험에 대한 연구)에 대해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했다.

세인이엔지는 경남 양산에 소재한 자동차 신뢰성시험 전문업체로 2019년부터 울산TP와 협업해 다양한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험(수명평가·환경평가·내구성평가·충격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KCC 울산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강소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울산TP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서 진행하던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함으로써, 외화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유출을 방지해 국내 배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TP는 “강화된 배터리 안전규격을 만족하는 국내 유일의 배터리 평가시험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내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곤 기자

경상일보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009면 경제

울산테크노파크, 세인이엔지와 협약

##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험법 개발 나서

울산테크노파크는 (주)세인이엔지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증 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높은 수준의 배터리 충격 안전성 평가시험법 개발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울산테크노파크가 구축을 추진하는 자동차 충돌시험 모사장비.

울산테크노파크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

리의 신뢰성 문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되는 점을 감안, 세인이엔지와 함께 새로운 평가시험법 개발에 나선다.

세인이엔지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자동차 신뢰성 시험 전문업체다. 지난 2019년부터 울산테크노파크와 협업해 다양한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KCC 울산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울산테크노파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진행하던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함으로써, 외화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유출을 방지해 국내 배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강화된 배터리 안전 규격을 만족하는 국내 유일의 배터리 평가시험 기관으로 발전하는 등 국내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